

'2020년 국가 대테러종합훈련' 인천국제공항 대테러 대응태세 점검

- 6일 인천공항서 항공기 피랍·드론테러 종합훈련 참관 -

- 국무조정실(대테러센터)과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방부, 국정원 등 대테러 담당 8개 유관기관, 400여 명의 정예요원이 참여한 「2020년 국가 대테러종합훈련」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.
- 이날 훈련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기관장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군집드론 플래시몹을 비롯하여 ①드론산업 소개, ②드론테러 폭파 위력 시연, ③불법드론 탐지·차단, ④항공기 피랍 및 ⑤공항 시설 점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대테러 대응태세를 점검하였다.
- 국토교통부 손명수 차관은 “최근 인천공항 주변 불법드론 출몰로 인한 항공기 운항이 지연 또는 회항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불법드론 등을 이용한 항공테러에 대비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, 인명 및 시설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 간 대응체계 및 초동조치 매뉴얼을 철저히 숙지하여 줄 것을 강조”하였다.

2020. 11. 6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국가 대테러종합훈련

- (일 시) '20.11.6(금), 15:00~15:50 (※리허설 : 11.3 ~ 6 오전)
- (장 소) 인천공항 보호구역 내 서측 제3배전변전소 앞
- (훈련기관) 국조실(대테러센터), 국토교통부(항공보안과·서울지방항공청), 국정원, 경찰청, 국방부, 소방청, 해양경찰청, 인천공항공사 등
 - * 훈련인원 400여명(초동조치, 테러대응 전담조직, 구조·구급요원 등)
- (참관단) 국무총리님, 국방부장관, 국토부 2차관님, 인천시장 등 20여명

인천국제공항



순서	상 황	훈련 내용
①	드론산업 소개	○ 드론 플래시몹 ○ 레이싱 드론 시범비행
②	드론 위력시연	○ 공중 폭파 ○ 다중인파 돌진 폭파
③	드론 탐지·차단	○ 드론 레이더 탐지 ○ 재밍장치 이용 차단(※나레이션으로 대체)
④	항공기 피랍 (실제 항공기 동원)	○ 대응조직 현장전개·초동조치 ○ 헬기 패스트로프 ○ 화학물질 유독가스 탐지 ○ 항공기 포위 및 내부진압 검거 ○ 구조·구급 및 화재진압
⑤	공항시설 점거 (세트장 설치)	○ 터미널 난입, 총기난사 및 인질억류 ○ 협상팀 협상 ○ 진압 및 검거, 사상자 후송